



■ 정부 대중교통 승차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 날 / 현장에서는…

“안 썼다고 승차거부?… 쉽지 않죠”

정부·제주 시행일 ‘혼선’
마스크 미착용 승객 많아
기사들 “취지는 좋은데…”
마스크 착용 홍보활동 필요
성숙한 시민의식 성패 열쇠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라는 건 알았지만,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마스크를 깜빡 했어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6일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제주도는 27일부터 시행하면서 현장에선 승객과 운전자들의 혼선이 빚어졌다.

오전 8시 제주버스터미널~서귀포 버스터미널 노선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정류장 4곳을 지나치는 동안 버스에 탑승한 승객 30여명 중 마스크가 없는 사람은 7명이었다. 마스크를 깜빡하고 나왔다는 직장인 현모(29)씨는 “원래는 잘 쓴다”며 “오늘은 늦잠을 자서 아침에 정신이 없었다”고 멧쩍게 웃었다.

운전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탑승할 때마다 승차를 거부하는 대신 다음부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는 당부에 그쳤다. 버스기



정부가 대중교통 승차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6일 제주도 동문시장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이상국기자

사 A씨는 “오늘부터 승차 거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바쁜 출근길에 (마스크 없이 승차한 사람들) 제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은 알고 있지만 고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에 찾은 제주 공항 택시 승차대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다. 택시기사 B씨는 “낮에는 손님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서 원래 큰 문제가 없다”며 “밤에 술에 취

한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다가 다들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C씨는 “안 그래도 요즘 손님이 귀한데, 승차 거부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란 소리”라며 “취지는 좋지만 택시를 타는 승객에게 강제로 내리라고 할 순 없다”고 했다.

이처럼 도내 대중교통 현장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놓고 혼란스런 모습이 확인됐다. 기사들이 마스크 없이 승차한 승객에 대해 강

제로 탑승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착용 의무화에 대해 제주도에선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스크 의무화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보내왔는데, 개선명령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주도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119, 최신형 특수구급차 8대 현장배치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내 119센터에 최신형 119특수구급차 8대를 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

이번 특수구급차는 현장 구급대원들의 차량구조와 구급 장비 선조도 의견을 반영해 제작됐다. 사이렌 스피커 조작등 개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고강도 자동 발판장치 개선, 차량 내 안전등 추가 설치 등 기존 노후차량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 차량 내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자동흡부압박기,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식 산소소생기 등 36종 1125점의 각종 응급의료 장비가 탑재됐다.

특히 이번 특수구급차에는 119구급대원들이 사고현장에서 환자이송 등에 발생하는 폭행에 신속히 대처



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방지신고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각종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119특수구급차 등 응급의료장비 보강과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됐다”며 “도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마라톤 연습하던 50대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유족측 “무죄선고 불합리”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쯤 제주도 아라동 애조로 달무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 중 일행과 마라톤을 연습하며 마주오던 B(5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끼는데다 가로등이 없어 시야

가 좋지 않아 운전자가 평소보다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살펴야 하지만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보고 기소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하고 갓길까지 있는 상황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나 2차로와 3차로 사이 도로위를 역주행해 마라톤연습을 하며 달려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유족측은 즉각 반박했다. 유족측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사고가 난 애조로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간주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문미숙기자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 서귀포칼호텔 패소 지법 “30년 넘게 무단점용한 국유지 개방해야”

서귀포칼호텔이 30년 넘게 무단점용해온 국유지인 지목상 ‘도로’를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6일 한진그룹 자회사인 (주)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및 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가 서귀포칼호텔이 1985년 호텔영업

을 시작한 후 30년 넘게 국토교통부 소유의 지목상 도로인 공공도로 3필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해당 국유지 옆으로 제주올레 6코스가 지나갔는데, 칼호텔 측이 2009년부터 일반인 통행을 금

지하면서 올레코스 구간이 변경되는 등 경관사유화 논란도 일었다.

이어지는 논란에 서귀포시는 2018년 현장조사를 벌여 칼호텔측의 무단점용을 확인하고 호텔측의 공공도로 불법 점·사용에 대한 5년치 변상금 84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칼호텔네트워크는 변상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1970년대 호텔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해당 도로가 포함됐는데 이제와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9년 1월 원상회복 및 게고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심 판결의 국유재산인 공공도로에 대한 원상회복 취지는 시민 등 일반인이 도로를 자유롭게通行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미숙기자

도내 공립도서관 내달 4일부터 문 연다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제주도의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도내 공립도서관이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4일부터 한라도서관과 행정시 소속 14개 공공도서관의 대출과 반납을 위한 자료실을 개방·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서 대출은 주중·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자료실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실시 및 출입명부 작성 후 입장이 가능하다. 단 자료실 내 열람좌석, PC이용 및 개인학습 이용은 제한된다.

열람실은 6월 22일부터 수용 인원의 50% 범위내로 한정해 허용된다.

현재 각 도서관에서는 소장 도서에 대한 소독을 마친 상태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서 소독기를 추가로 배치해 출·반납 도서에 대한 소독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료실 개방을 위해 자료실 안내대 및 좌석에 가림막 설치, 주기적 환기 등 시설 방역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며 안전한 공간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 부분 개관으로 대출 서비스가 이뤄짐에 따라 북드라이브 스루 예약 대출 서비스는 오는 30일 운영이 종료된다.

이태윤기자

제주시 오늘부터 공공체육시설 단계적 개방

제주시는 ‘제주형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27일부터 종합경기장과 애환운동장 등 36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시는 6월 4일 32개 실외 공공체육 시설에 대한 1단계 개방을 시작으로 6월 22일부터 4개 실내공공체육시설로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실외 공공체육시설 중 사전예약제 운영이 가능한 시설에 대

해서는 27일부터 부분 개방한다. 또 등록된 전문 엘리트선수에게 한해 실내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부분 개방할 방침이다.

시는 ‘이용자간 거리두기 및 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금지’라는 운영원칙 아래 1단계 개방이 시작되는만큼 주기적인 방역과 발열 체크기·출입자 명부 등을 비치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문미숙기자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탐라향 5년생(화분)

●궁천변이지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사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감귤·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엽면시비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탱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